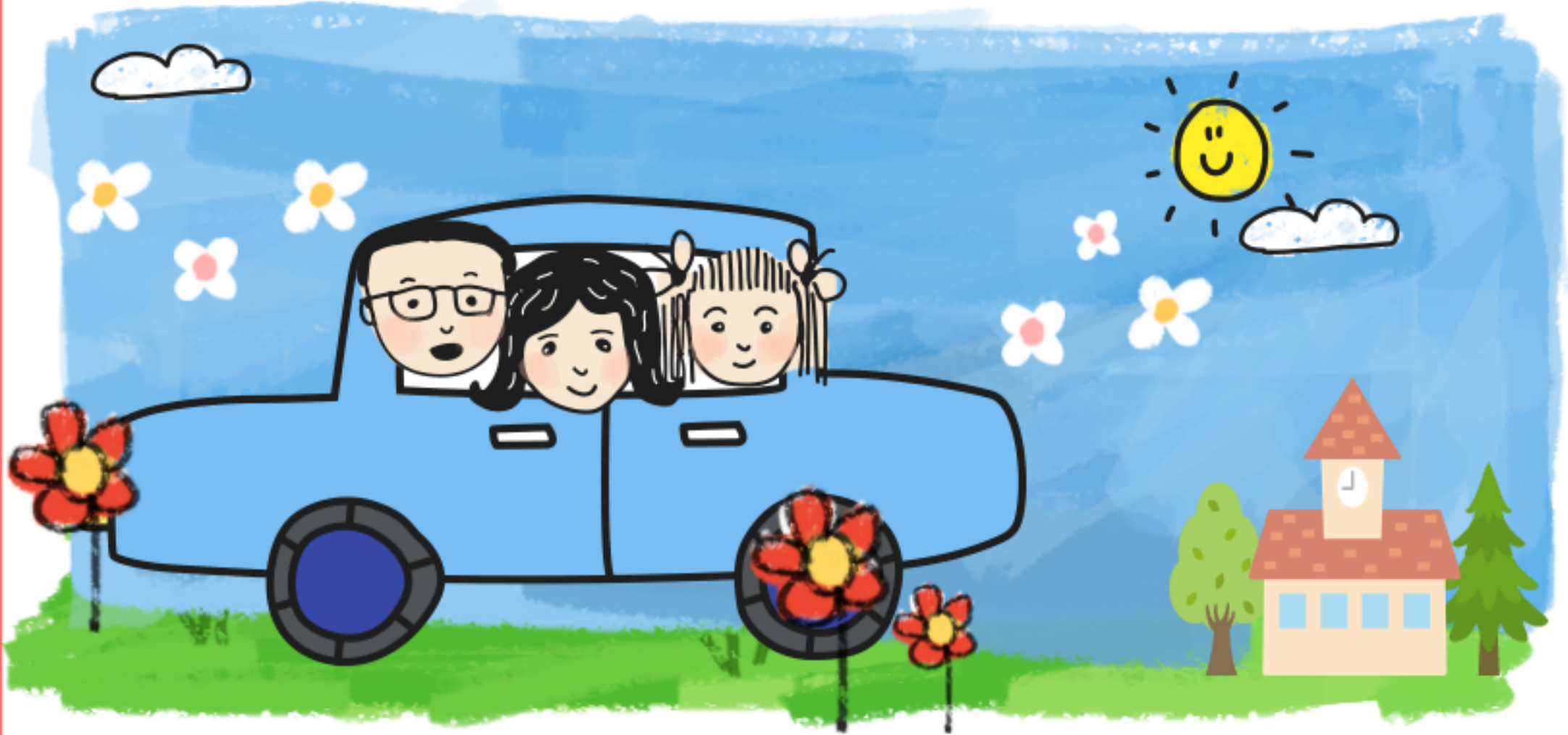


2021년 5월 창간호

vol.

1



모아보나

모 아 맘 의 행 북 등

전 해 주 늘

M O A B O N A

라떼는 딸이야

원장님이 들려주는 교사시절 이야기

"어머, 우리 원장님도..."

"내가 말이야~"



만5세 담임하던 시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줄을 세워 귀가하는데 계속해서 따라오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도 따라와서 이상하
다 싶었는데 2주 넘게 지나던 중 원 전화가 000게 맞느냐며 말을 걸었죠
맛다고 하니 퇴근시간쯤 전화를 드린다고 해서 이 사실을 다른 교사들에게 말했더니 썸이라며 교사들 소리치고 난리 난리...
진짜 전화가 와서 두근바새근반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아닌 제일 막둥이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다리종 놔달라고TT
결국 제가 중매자리로 멋진 커피숍 잡아 교량역할해서 그 교사는 결혼~~♥
알고보니 중소기업 젊은 회장이었고 난 지금도 충분히 그 설렘을 간직한채 산다우♥♥

ID: 달달라떼

핸드라울을 안 쓰던 90년대의 교사시절에는 말이야~ 세모난 고리달린 수건을 오징어수건이라고 불렀는데,
준비물에 써 보냈더니 오징어와 수건을 보낸 학부모가 있었어.

ID: 발랄하람

불금 야근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을 시각, 누군가의 '바다보고 싶다...'라는 공허한 외침을 듣는
순간 서로의 눈빛을 읽은 선,후배 동료교사들!!! 쌓여진 업무를 뒤로 한 채 동해바다로 출발~!!!
방새 차를 타고 달려 일출과 마주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일탈의(?) 짜릿함과 더 돈독해진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다!
돌아온 후 후유증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그려지는 행복한 추억이랍니다~

ID: Editha

우리 반 아이들이 40명이던 시절이 있었지.
배식을 해도 40번, 상담을 해도 40명, 전학이라도 가면 머리만 세다가 돌아오던 그 때.. 나때는 그랬었지..

ID: 다둥이선생님

유치원으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선생님~ 우리 명수가 집으로 혼자 왔어요. 혹시 수업이 끝났나요?"

다행히 유치원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살던

명수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교실을 나섰는데 자기집 화장실로 달려간 것입니다.

지금은 생각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지만 그때는 화장실이 너무 급한 개구장이의 에피소드로

"이제는 꼭 유치원화장실을 쓰겠다"는 약속을 받고 마무리되었답니다. ㄱ



ID:꽃돼지

라떼는 말야 출산휴가가 먼말이야, 육아휴직이 어케 생겼나 했지, 결혼식도 방학때, 출산도 방학때

우리반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지

그게 또 자부심이였지... 그들이 사명감을 알아~~~~~



ID:라떼 곤대

옆 반 선생님과 함께 양푼에 밥을 비벼 함께 나눠 먹었다. 물론 원장님 몰래~그런데 점심시간 라운딩 도시던 원장님께 딱 걸려 덜덜덜 떨고 있는데 "나도 숟가락 하나만 줘 봐요." 라며 함께 양푼 비빔밥을 나눠 드시며 맛있다고 하셨다.

그 모습에 "원장님, 저희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비벼 먹을까요?"라며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

흔쾌히 "그래요!"라고 하시는 원장님의 모습에 속으로 만세를 외쳤다.

그렇게 비빔밥 데이가 만들어졌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던 비빔밥의 맛은 아직도 잊질 못한다.

지금도 나는 가끔 조리사님께 고추장을 부탁해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있다.

(어린이집에 있으면 왜 그렇게 맵고 짭 음식이 먹고 싶은지...)



ID: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라떼는 말이야~ 만3세반 28명은 한눈에~~그냥 들어왔어~ 보조교사? 그런건 없었지~ 교실엔 only 담임교사 1명만!!!! 차량 당번 일 때는?? 옆반 교사가 함께 봐줬지...두반 합치면...

인원이... 헉!!!! 이였지... 근데... 그 시절엔...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참 좋았지...

CCTV 없어도... 어린이집을... 교사를 믿어주는.. 시절이었지... 암..... 그때 그랬지.

ID:심쿵소녀



예전에는 학부모와 단순히 교사와 부모의 관계를 넘어서 좀 더 정에 가까운 관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3명의 자녀를 보낸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막내가 7살 졸업반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고 원장님과 선생님을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클럽으로 초대를 했답니다. 가을 운동회를 마치고 먼지와 땅이 뽕뽕한 상태로 가게 되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분들이 쭉 서서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 환영합니다" 라고 크게 인사를 해서 매우 난감했지만 잊지 못할 부모님의 초대였어요~ 1990년대 시절이라 가능하지 않았을까 해요~

ID:꼬마대장

23살 교사 시절에 원장님께서 선물이라며 20kg 쌀을 주셨어. 그때는 이렇게 주고 받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지. (쌀포대를 짊어지고 퇴근하다가 빙판길에서 세 번째 미끄러졌을 때 '이거 그냥 확 버릴까?'라고 생각한 건 비밀)



ID:선물인듯 선물 아닌 선물

매주 수요일은 오전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귀가했지요!!

일주일 중 반나절은 온전히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지요~~~

ID:도토리

산울림 신입때, 회의하다가도 벌떡! 힘든일, 청소, 굶은일, 모두 벌떡벌떡 일어나서 했었답니다.

그때는 복장도 단정, 네일은 노놉!, 단정한 앞치마 입고 아이들맛을 준비 요이땅~

퇴근시간은 정해져있지만 선배교사가 퇴근하는 분위기살피고 퇴근준비 했습니다. 신입교사는 눈치빠름이 제덕목이었습시다.

반면 지금은 업무 공평시대~ 입사시 급여는 어찌되는지? 상여금은 있는지?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당당히 물어봅니다.

내 업무는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 원과 내가 잘 맞을지는 신입교사의 망명기에 달려있습니다.

복장도 자유, 내 휴게시간 보장받고싶고, 개인업무시 라인의 간섭은 노노!!

퇴근시간이 되면 업무 마무리 하고 빛의 속도로 후리릭 퇴근합니다. 나의 삶, 나의 시간관리는 중요하니까요.

잘쉬고, 릴렉스 편안히 시간을 보내기~ 그래야 내일 또 아이들을 맛을 힘이 나니까요.

2021년 달라진 보육현장.....

라떼를 이야기하는순간 나는 이순간 쫄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신입때 키워둔 눈치를 봅니다. ㅎㅎㅎ

ID:산울림





타야지기

안녕하세요! 타야지기입니다



나나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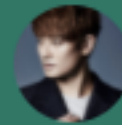
스텝에 대해 알고 싶은게 너무 많아, 이렇게초대하게 되었습니다 ㅎㅎ

그럼 빠르게 질문으로 들어가서! 스텝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나나

생활속에 과학, 기술,공학, 수학, 예술 분야를 넘나들며 학문간에 융합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주변상황에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발견하며 주도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타야지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확실 합니다.

그래도 시작하려고 하니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구요

그것이 알고싶다

- STEAM 본사편 -

스팀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타야지

스팀 밴드(MOA STEAM)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영상 자료 및 서면 자료를 통하여 스팀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재단컨설팅, 교사연구회, 중앙대학교 조형속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하는 컨설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나

궁금하신 점을 재단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답변 드립니다!

우와~ 설명만 들어도 정말 든든한데요, 그럼 스팀프로그래밍에 대한 Tip이 있을까요?



나나

저는 교사가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컨설팅 피드백도 받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야지

먼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이론적인 배경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론적인 배경이 다양한 아이디어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작년 진행한 STEAM프로그램 보고서를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나

2020 모아맘 STEAM보고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직접 경험해 보면서 알게된 스템프로그램을 하면서 유아들이 달라진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타야지니

유아들이 재료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진 모습을 보았어요. 글루건 심이 열을 가했을때 녹는 모습을 보면서 '글루건 심은 플라스틱인것 같아요. 열에 의해서 녹으니까요'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경험을 반복해서 하게 되니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능력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정도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나

올해 스템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 일까요?

모아맘에 스템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싶어요!



타야지니

"모아맘 하면 스템"이라고 생각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 인터뷰에 참여하시는 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타야지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템프로그램을 발표한 소감은 어땠나요?

그것이 알고싶다

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 집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MORE & 모어

점점 더 알아가는 모아맘 어린이집 소식

Q1.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변경 위탁으로 마리오아울렛 어린이집에 새롭게 오게 된 원장 구윤정입니다.

다 같은 직장 어린이집이라도 유형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이나 자원받는 방법 등이 다르다 보니

3월 한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는거 같아요.

국가기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가 민간기업 어린이집에서 일하니 모든 것이 다 배워야 하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모아맘 소속재단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셔서 많이 알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덕에 하나씩 배우며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단의 장점인거 같아요 어디에 있던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니 바쁘고 정신없더라도

매일 아침 설렘반 기대반으로 출근을 하게 되는 거 같아 좋은거 같아요.

다시 신입 원장이 된 느낌입니다. 저절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Q2. 마리오 아울렛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 인가요?

마리오 아울렛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리오 아울렛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것 또한 당사 사회공헌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공동직장 어린이집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마리오 아울렛 회사를 소개하자면 국내·외 패션 브랜드는 물론이고 키즈테마파크, 서점, 리빙, F&B 등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쇼핑 카테고리를 보유해 편리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고 브랜드 상설매장은 물론이고 브랜드 종합관, 팩토리 아울렛, 편집숍,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매장에서 맞춤형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이 복합쇼핑몰 2관 4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모아맘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정원60명 현원25명 4개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직원 8명이 근무하는 쾌적하고 아담한 어린이집입니다.

직장맘들의 이용편의성 및 접근성이 좋아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있으며 아이들은 부모님과 교사와의 애착형성이 잘 형성되어져 있어 등원시나 하원시 밝고 훈훈한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어 한 가족같은 느낌의 어린이집입니다. (등원시 울거나 떼쓰며 등원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ㅎㅎ)



Q3. 마리오 아울렛 어린이집을 어떤 어린이집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늘 그랬지만 신나고 재미있는 어린이집이 최고인거 같아요 제일 속상했던게 아이들이 심심하다고 할때나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할 때예요.

교사 회의시간에도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아주라는 당부를 많이 했던거 같아요. 무엇을 가르키느냐 보다는 어떻게 재미있게 놀이할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아이들은 그 놀이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잖아요.

지금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릴적 놀이를 통해 쌓아온 잠재력과 문제해결력을 토대로 바른 가치관의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상상하면 진짜 멋진 일인거 같아요.

어릴때부터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놀이를 주도할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신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네요. 잘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웃는 원장이 되고 싶어요!



어버이날 & 스승의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5월 창간호

vo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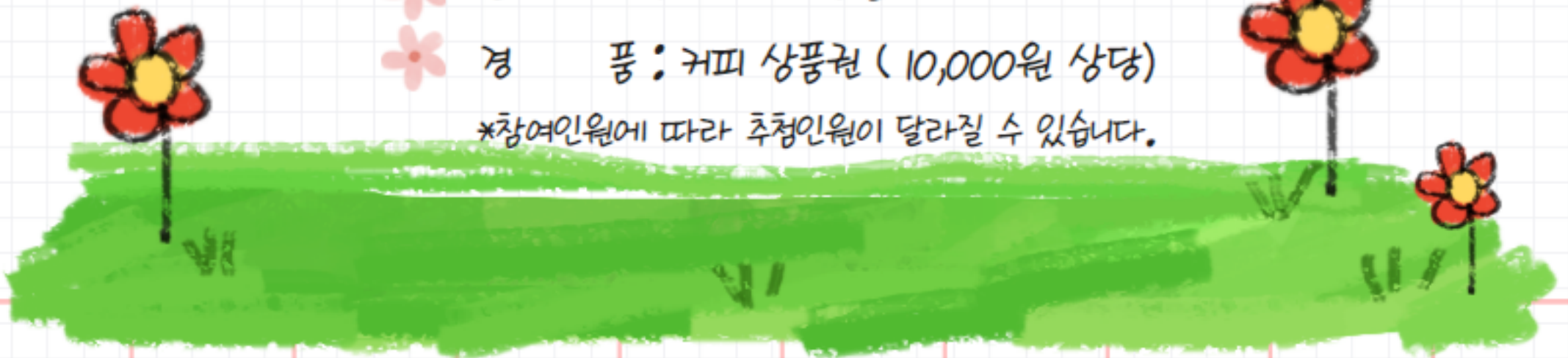


모아보나 창간 기념 이벤트

'모아보나'로 사행시를 지어 보내주세요!

✿ 참여 방법 : 5월 19일까지 메일로 참여
(moabona@naver.com)

✿ 인 원 : 10명 추첨
✿ 발 표 : 모아보나 6월호에 게시
✿ 경 품 : 커피 상품권 (10,000원 상당)
*참여인원에 따라 추첨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www.moamom.co.kr



엄마와 아이의 마음을 모아 엄마같이보육하는,

모아맘보육재단

모아보나 vol.1

발행인 채혜선 오영석 발행처 모아맘보육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7, 2층 02-569-5052

모아보나의 모든 내용은 무단전제, 불법 복제 및 무단배포를 금합니다.